

공주 송산리 제6호분에 대하여 (公主 宋山里 第6號墳에 대하여)

鄭 在 勳
<文化財管理局長>

目 次

- 1. 序言
- 2. 宋山里 第6號墳의 考察
- 3. 맺는말

1. 서언(序言)

공주(公主)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1987年 7月 21日 전(前)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국장(文化局長)을 지내신 이성철(李星澈)씨가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사진자료를 가지고 필자를 찾아 와서 전해준 일에서 비롯된다.

이 사진자료들은 모두 28매(枚)로 되었는데 제(第)6호분(號墳)의 발견당시 현장사진과 일부는 실측도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다. 표지에 「백제왕릉(百濟王陵)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 사진(寫眞) 및 실측도(實測圖)」 「경부자은편(經部慈恩編)」이라 먹글씨로 쓰고 1969年 2월편(月編)이라 타이핑한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성철(李星澈)씨에 의하면 1869年 2월에 일본(日本)에 있는 경부자은(經部慈恩)씨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경부자은(經部慈恩)씨가 이성철(李星澈)씨에게 이 자료를 송부하게 된 것은 일제(日帝)때 공주고보(公州高普)에서 경부자은(經部慈恩)씨에게 배운 제자가 되고 또 이성철(李星澈)씨가 주일본(駐日本) 한국대사관(韓國大使館)의 공보관(公報官)으로 근무할 때 스승인 경부자은(經部慈恩)씨와 각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성철(李星澈)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국장(文化局長)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그가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자료를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는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성철(李星澈)씨가 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전해준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

경부자은(經部慈恩)씨는 1897年 일본(日本) 산형현(山形縣)에서 출생(出生)하여 1925年 일본(日本) 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 문학부(文學部)를 졸업하고 1925년부터 평양숭실전문학교(平壤崇實專門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공주고보(公州高普)로 옮겨 1945년까지 20여년간 백

제유적(百濟遺蹟)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일본(日本)으로 돌아가서 1948년부터 일본(日本) 대학(大學)에 출강하였으며 1970년 사망한 사람이다. 그는 백제문화(百濟文化)에 대한 조사연구도 하였다.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사진과 실측도 사진 자료를 제자인 이성철(李星澈)씨에게 송부할때는 그가 죽기 1년전이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사진자료는 1933년 6월 28일 송산리(宋山里) 제(第)1호분(號墳)에서 제(第)5호분(號墳)까지의 삼도(參道) 개척공사를 하다가 전축분(塼築墳) 배수구(排水溝) 일부(一部)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7월 21일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排水溝) 첨단부(尖端部)에서 전축분(塼築墳)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때 찍은 사진과 실측도사진 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들과 실측도 사진을 살펴보니 1971년 일본(日本) 동경(東京)에서 경부자은(經部慈恩)씨의 제자들이 선생의 고희기념(古稀紀念)으로 발간한 경부자은(經部慈恩)저(著) 「백제유적(百濟遺蹟)의 연구(研究)」도판(圖版) 23부터 34까지에 수록된 사진이 대부분이고 4장만이 「백제유적(百濟遺蹟)의 연구(研究)」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경부자은(經部慈恩)씨가 처음에는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에 대한 상세한 학술 보고서(報告書)를 쓸 작정으로 사진과 실측도사진 자료에 일일이 번호를 붙여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번호가 NO.1에서 NO.26.까지 인데 NO.10의 사진이 빠져 있는 것이었다.

이 NO.10의 사진은 사진의 순서로 보면 제(第)6호분(號墳)의 바닥 즉 관대와 현실(玄室)의 유물 노출 상태를 찍은 것 같은데 그 사진만 유독 빠져있다.

그리고 「백제유적(百濟遺蹟)의 연구(研究)」에 수록하지 않은 4매(枚)의 사진은 일련번호로는 NO.3 「송산리 제6호분 발견(宋山里 第6號墳 發見)의 동기(動機)를 작(作)った 배수구 첨단부(排水溝 尖端部)의 전구축출토(塼構築出土)」라 설명이 쓰인 배수구 노출장면과 NO.5 「전축배수구(塼築排水溝) 실측도(實測圖)」라 쓴 배수구 실측도와 NO.6 「전축배수구 실측도 종단면 및 횡단면(塼築排水溝 實測圖 縱斷面及 橫斷面)」과 NO.11 「고대(古代)의 도굴(盜掘)された 穴から 현실내(玄室内)를 촬영(撮影)」의 설명이 쓰인 현실바닥 일부와 관대일부(棺台一部)에 유물(遺物)이 노출된 사진이다. 이를 보면 NO.10의 사진은 현실(玄室)바닥과 관대 전부를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경부자은(經部慈恩)씨 같은 전문적(專門的) 식견이 있는 사람이 새로 발견되는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을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의 관대와 유물(도굴되어도 일부 유물은 남아 있었을 것임)의 노출 상태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고희기념(古稀紀念) 책자 「백제유적(百濟遺蹟)의 연구(研究)」를 발간할 때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사진과 실측도사진을 다 수록하도록 (이 기념(紀念)책자는 경부자은(經部慈恩)씨가 살아 있을 때 자료를 모아 편집이 완료되었던 것이며 본인(本人)이 병중에 이미 견본(見本)을 보았음¹⁾)하지 않고 어째서 중요한 사진과 몇 장의 사진을 제외 시켰던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NO.3, NO.5, NO.6의 사진은 배수구에 관한 것이므로 출토유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NO.11의 관대(棺台)와 현실(玄室) 바닥 및 유물(遺物)같이 보이는 물건의 노출된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이 사진은 제자인 이성철(李星澈)씨에게 보내기까지하여 사진이 있었는데도 수록하지 아니한 것은 어쩔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없어진 NO.10의 사진이 현실과 관대를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사진자료를 보면 모두 현장사진이 1매 있고 거기에 따른 실측도사진이 1매 있는데 유독 NO.13의

1) 經部慈恩著: 「百濟遺蹟의 研究」あとがき 1971年(昭和46年) 10月 16日 吉川弘文館.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 현실(玄室) 선도부(羨道部) 상면평면도(床面平面圖)」는 현장사진이 없고 평면 실측도사진만 있다.

분명히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은 도굴된 후에 발견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점의 유물도 없이 쓸어간 도굴 고분은 없기 때문이다. 토기 한쪽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상례이다.

당시 공주(公州) 송산리(宋山里) 고분(古墳)의 도굴사항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소화2년도(昭和二年度)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 제2책(第2冊) 공주(公州) 송산리고분조사보고(宋山里古墳調査報告)에 보면 송산리(宋山里) 제(第)1호분(號墳), 제(第)2호분(號墳), 제(第)5호분(號墳)이 모두 그 당시 도굴된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제1호분에서는 은제과대의 과관이나 금동제 대단금구(帶端金具) 순금제금구(純金製金具), 은제칼잡이장식, 철징, 철기관, 철촉 등이 출토 되었다.

제2호분에서는 금동요대과관(金銅腰帶銜板), 은제화형(銀製花形)장식, 관못,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제5호분에서는 금제요대과관(金製腰帶銜板), 금동제 교구(鉸具), 유리옥, 도자(刀子), 철촉, 관못,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보고서(報告書)에 보면 제1호분 내에서 발굴 당시 조일신문(朝日新聞)의 조각이 나왔고 초와 성냥 인조호박(人造琥珀)의 파이프가 발견되어 도굴된 지가 오래지 않았으며 발굴은 소화2년(昭和二年)(1927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日間)했는데 도굴은 그해 3월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굴은 이민(里民)이 하였는데 도굴품은 곡옥(曲玉), 유리옥, 태도(太刀), 도끼 등의 유물이었으며 공주읍내(公州邑內) 모(某) 내지인(內地人)(일본(日本) 본토인이란 지칭)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금귀고리 한쌍은 일본으로 반출된 내용을 보고서 결론부분에 쓰고 있다. 이는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도 이때 도굴되었거나 발견된 당시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時期)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녕왕릉(武寧王陵)이 발견(發見)되었을 때 현실내(玄室內)에는 실같은 나무뿌리가 안개처럼 자욱히 내려 있었는데 제(第)6호분(號墳)의 발견당시 사진에는 이러한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도굴된 후 오랜기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第)1호분(號墳), 제(第)2호분(號墳), 제(第)5호분(號墳)이 모두 도굴된 후에 발굴하였어도 잔존유물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제(第)6호분내(號墳內)에도 분명히 잔존유물이 남아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경부자은(輕部慈恩)씨는 충분히 학술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시 촬영한 모든 사진을 다 공개하지 않고 사진 NO.10을 은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진이 있는데도 「백제유적의 연구(百濟遺蹟의 研究)」에서 현실 바닥과 관태일부(棺臺一部)를 찍은 사진 NO.11을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출토 유물과 관계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의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국내 학계에 거의 알려진 자료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몇장의 사진도 있고 해서 발표하는 바이며 언젠가는 풀어야 할 출토 유물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해 두는 것이다.

그간에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 구조(構造)에 대한 연구논문(研究論文)이 여러편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고찰(考察)

백제의 전축분(塼築墳)은 모두 공주지성(公州地城)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공주(公主) 송산리(宋山里)에 있는 제(第)6호분(號墳)과 무녕왕릉(武寧王陵)과 공주(公州) 교촌리(校村里) 전축분(塼築墳)등²⁾ 3기(基)이다.

강인구(姜仁求)교수가 고고미술(考古美術) 110호(號)(p.p11-15)에 보고(報告)하고 있는 부여(扶餘) 정동리출토(井洞里出土)의 묘용전(墓用塼)은 과연 18점(點)인데 이는 전축분(塼築墳)으로 보기 보다는 석실고분(石室古墳)의 연도 같은 것을 막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공주(公州) 교촌리(校村里) 전축분(塼築墳)은 축조기술(築造技術)의 미숙으로 완성을 보지 못한 전축분(塼築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과 무녕왕릉(武寧王陵) 2기의 전축분(塼築墳)만을 비교검토해 본다.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구조비교는 다음과 같다.

古墳名	① 玄室平面	② 羨道平面	③ 羨道法	④ 塼露
武寧王陵	길이 4.2m 폭 2.72m 單室 長方形 南北向 (동쪽으로 5기 있다)	玄室中央에 연도 부설 길이 2.9m 폭 1.04m	석출로 축조 四方一室	· 방벽 2칸의 塼으로 寶珠形 감실 조성 · 감실은 폭역에 1개 폭역에 2개 서역에 2개 합 5개 · 감실 下部에 圓窓이 조성 · 감실주위 적석화염문 · 가장 중앙에 천주문의 흔적
第6號墳	길이 3.7m 폭 2.36m 單室 長方形 南北向 (동쪽으로 7기 있다)	玄室 中央에 연도 부설 길이 2.3m 말폭 0.8m 말폭 1.1m 前後 2區로 구분됨. (바닥쪽이 약간 좁고 안쪽이 약간 넓다)	석출로 축조 十平一室 八平一室 六平一室 四平一室의 순서로 쌓아올림	· 내부를 寶珠形으로 도려낸 塼으로 寶珠形 감실 조성 · 감실은 폭역에 1개 서역에 3개 폭역에 3개 합 7개 · 감실 上部에 圓窓이 조성 · 감실주위 적석화염문 채색
⑤ 溝 文		⑥ 벽 화		⑦ 배 수 구
· 溝文 · 羨道左右의 벽과 연도 제제전 중의 溝文이 존재함.		· 감실주위 적석 연화문과 가장의 장상에 걸부른 벽을 칠한 것 외에 벽화는 없음.		· 羨道 밖으로 부분적으로 판은 길이 18.7m의 천축배수구 있음. · 기점은 연도와 원실의 경계를 구획한 立塼 사이에서 시작 階梯는 산허리 경사면에 노출
· 溝 文 · 玄室入口의 제제전중 溝文이 존재함		· 四方 壁面에 圓窓을 繪함으로 그렸음 · 벽체에서는 작은 도자기 전열에 4-5개의 交互로 걸부른 벽을 채색 · 天井에도 걸부른 채색이 일부 있음		· 연도 밖으로 길이 약 20m의 부분적으로 축조한 천축배수구 있음 · 기점으로는 원실 바닥 溝道中央 부근 小圓孔에서 시작

2) 輕部慈恩著: 「百濟遺蹟의 研究」 圖版 34. 公州校村里古墳 第3號墳 實測圖

⑩ 墓室天井	⑦ 甬道天井	⑧ 바닥·棺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尖頭形 아치형 · 四平一豎式으로 계속 살다가 一部를 三平一豎도 즐었고 또 三平으로 2쪽 1쪽에서 가운데 一枚는 橫斷面이 梯形을 이룬 塋을 사용 · 玄室 북쪽 천정높이는 棺台에서 2.93m 남쪽 천정 높이는 2.84m로 북쪽 천정이 약 10cm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형 아치형 · 천정높이 1.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은 삿자리문으로 전을 깔았음. · 현실의 앞바닥은 연도의 바닥보다 21cm 낮다. · 棺台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현실 $\frac{1}{4}$ 안쪽에 21cm 높지 바닥을 만들어 棺台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尖頭形 아치형 · 현실 북쪽 천정높이는 3.13m 현실 남쪽 천정높이는 3.04m로 북쪽 천정이 약 9cm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형 아치형 · 천정높이 前區 1.32m 後區 1.4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은 삿자리문으로 전을 깔았음 · 현실 바닥과 연도바닥이 同一한 平面임 · 현실 동면에 塋臺棺台 1개 조성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의 구조(構造) 비교(比較)

이들 두 전축분(塋築墳)에 대한 구조 연구는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의 윤무병(尹武炳) 박사(博士)가 「무녕왕릉(武寧王陵) 및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전축구조(塋築構造)에 대한 고찰(考察)」을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백제연구소(百濟研究所)가 발행하는 「백제연구(百濟研究)」 제5집(1974. 12. 30)에 발표한 바가 있다.

윤무병(尹武炳) 박사(博士)의 연구논문 결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을 기본적 성격에서는 동일 유형에 속한다. 현실(玄室) 평면(平面)이 장방형(長方形)을 이루고 전벽중앙(前壁中央)에 짧은 선도(羨道)가 있고 천정(天井)은 아아치로 형성하고 현실(玄室) 벽면에 소형(小形) 등감(燈龕)과 가창형(假窓形)을 만들고 배수구를 시설하는 등 공통점이 있고 양 고분이 비슷한 시기(時期)에 조영(造營)되었음을 의심할 바가 없다.

무녕왕릉(武寧王陵)의 연화문전(蓮花文塋)은 중국(中國)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시작된 전문(塋文)의 하나이고 제(第)6호분(號墳)의 전문(塋文)은 한 대(漢代) 전묘(塋墓)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 내려온 전문(錢文)을 사용하였다.

두 고분의 차이점은 기술적인 면(面)에서는 전혀 다른 수법(手法)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벽의 등감(燈龕)과 가창형(假窓形)의 장식은 상하(上下)로 바뀌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요소가 각각 별도로 발생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선도(羨道)의 형식에 있어서의 제(第)6호분(號墳)은 전후(前後) 2구(區)로 구분(區分)된 점이 특이하며 묘실의 바닥 구조와 관련하여 관대의 구조방법에 있어서도 양자 사이에 명백한 동이점(同異點)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무덤이 같은 시기(時期)에 속하는 분묘(塋墓)들이기는 하나 실지 연대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선후 시간을 두고 조영되었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의 선후(先後)관계는 그 계보적인 원류(源流)를 소상(溯上)하여 육조시대(六朝時代) 전축묘(塋築墓)의 내부구조와 비교함으로써 가능한데 백제전묘(百濟塋墓)를 구성(構成)한 모든 요소는 중국(中國)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종합 고찰하는 과정에서 제(第)6호분(號墳)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형식상으로 선행(先行)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중국육조(中國六朝) 전축분(塼築墳)은 삼평일수법(三平一豎法)이 압도적이고 육조(六朝) 전기(前期)의 묘중(墓中)에는 사평일수(四平一豎), 육평일수(六平一豎) 같은 적립법(積立法)이 혼용된 예도 있는데 무녕왕릉(武寧王陵)은 사평일수(四平一豎)의 적립법(積立法)을 사용하여 묘실 벽면과 천정(天井)까지 구축하고 있다. 무녕왕릉(武寧王陵)의 천정(天井) 축조법은 전의 종류가 7종을 넘으며 횡단면(橫斷面)이 제형(梯形)을 이룬 것이 5종(種), 종단면(縱斷面)이 제형(梯形)을 이룬 것이 2종(種)이다. 횡단면(橫斷面)이 제형(梯形)을 이룬 것은 길이 모쌓기, 종단면이 제형(梯形)을 이룬 것은 작은 모쌓기를 했다. 이 천정 축조법은 육조묘(六朝墓)가 감히 따르지 못했던 높은 기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은 무녕왕릉(武寧王陵)의 축조법보다 뒤떨어지고 육조시기(六朝時期)의 축조법을 따르고 있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윤무병박사는 결론짓고 있다.

공주사대(公州師大) 안승주(安承周) 교수(教授)는 공주사대(公州師大) 백제문화연구소(百濟文化研究所) 발행(發行) 「백제문화(百濟文化)」 제7(第七), 8(八) 합집(合輯)(1975. 12. 30)에 「백제고분(百濟古墳)의 연구(研究)」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백제(百濟) 전축분(塼築墳) 용전(用塼)과 중국(中國) 남경출토(南京出土) 묘용전(墓用塼)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혔으며, 제(第)6호분(號墳)의 축조기술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향상(向上)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는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동서북(東西北) 벽면의 넓혀포개쌓기 세워쌓기의 반복된 축조법이 위로 올라 갈수록 넓혀포개쌓기의 전(塼)수가 2매(枚)씩 채감시키고 벽면이 차츰 내경(內傾)되며 천정(天井)의 구성은 동서(東西)간벽의 세워쌓기 사단(四段) 상부위(上部位)부터 주로 대패형(形) 전(塼)을 써서 길이쌓기를 하여 아치형(形) 천정(天井)을 형성하였는데 급곡선(急曲線) 부분은 제형전(梯形塼)을 단변(短邊)으로 쌓아 만곡도(彎曲度)를 급하게 하였다. 천정(天井)을 구성한 전(塼)과 전(塼) 사이에는 석회(石灰)를 끼우지 않고 순전히 공적법(空積法)에 의하여었는데 이러한 적전술(積塼術)은 무녕왕릉(武寧王陵)의 천정(天井)구성에 석회(石灰)를 끼운 것 보다 진보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공주(公州) 교촌리(校村里) 전축분(塼築墳)을 무녕왕릉(武寧王陵)이 제(第)6호분(號墳)보다 앞선 전축분(塼築墳)으로 보고 있다.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에서 출토된 명문전(銘文塼) 「梁□□爲師矣」에 대하여 관야정(關野貞)은 불분명(不分明)한 2자(二字)에 대하여 양(梁)에서 초청해온 전공명(塼工名)으로 해석하기도 하고³⁾, 또 박용전(朴容塼)교수는 「梁官瓦爲師矣(양관파위사의)」로 보기도 하며 경부자은(輕部慈恩)씨는 「梁官品爲師矣(양관품위사의)」로 보기도 하여 관독이 구구하다. 그리고 무녕왕릉(武寧王陵) 선도입구(羨道入口) 폐쇄 전(塼)중에 「土壬辰年作(사임진년작)」이란 명문전(銘文塼)이 나왔는데 사자(土字) 앞에는 글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떨어져 나갔으며 이 임진년(壬辰年)은 서기 512년에 해당하며 무녕왕(武寧王) 12년이 된다. 이를 보면 무녕왕릉전(武寧王陵塼)은 무녕왕(武寧王)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작된 것이 틀림없다.

강내삼진씨(岡內三眞氏)는 「백제무녕왕릉(百濟武寧王陵)과 남조묘(南朝墓)의 비교연구(比較研究)」(백제연구(百濟研究) 제11집 pp.223-276)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백제연구소(百濟研究所) 1980)에서 남조(南朝)의 전축분(塼築墳)중 전문전(錢文塼)의 하한(下限)예로 보통2년

3) 關野貞: 「塼より見たる 百濟と 支那南北朝 特に 梁との 文化關係」 「朝鮮の建築と藝術」 pp.489~490 東京 1941 東京 1941

(普通二年)(521) 대동원년(大同元年)(535)의 기년(紀年)이 있는 전축분(塼築墳)이 있어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선행(先行)한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인구교수(姜仁求教授)는 중국묘제(中國墓制)가 무녕왕릉(武寧王陵)에 미친 영향(影響)(백제연구(百濟研究) 제10집 pp.87-107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백제연구소(百濟研究所) 1979.12)에서 무녕왕릉(武寧王陵)이 풍수지리사상(風水地理思想)에 의하여 자리 잡았다. 웅진(熊津)의 주맥은 지리산(智異山) 덕유리(德裕里)에서 북주(北走)하여 오다가 몇번 서(西)와 북(北)으로 방향(方向)을 바꿔 우금치(牛禁峙)에서 북향(北向)하여 송산(宋山)에서 종착하였다.

무녕왕릉(武寧王陵)의 소재지점(所在地點)의 형세를 보면 송산(宋山)의 주봉(主峰)을 배후로 하고 남(南)으로 뻗은 소능선(小稜線)의 종단(終端)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었는데 좌우(左右) 양방에는 작은 계곡을 건너 동거리(同距離)에 능선들이 묘소재능선보다 약간 멀리 돌출하고 있어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의 형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부자은씨(輕部慈恩氏)는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의 진산(鎭山)이 현재(現在)의 무녕왕릉(武寧王陵) 봉분으로 보았던 것이며 그것이 무녕왕릉(武寧王陵)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第)6호분(號墳)의 진산(鎭山)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형국을 너무 좁게 본 것이며 강인구교수(姜仁求教授)는 제(第)6호분(號墳), 제(第)5호분(號墳), 무녕왕릉(武寧王陵)의 배산(背山)은 역시 송산(宋山)의 주봉(主峰)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백제전축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나 필자가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접어둔다.

위에서 언급한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의 선후(先後)관계와 명문전(銘文塼)을 통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의문시 되는 것은 윤무병(尹武炳) 박사(博士)의 논문에서 제(第)6호분(號墳)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선행하는 전축분(塼築墳)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든 점이 있다.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을 자세히 보면 천정(天井)의 구조등에서는 안승주(安承周) 교수(教授)가 제시 했듯이 제(第)6호분(號墳)의 구조가 더 완숙한 축조기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전(塼)의 연화문(蓮花文)과 전문(錢文)의 관계는 선도(羨道)의 입구(入口) 폐쇄전 등에서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의 전(塼)이 서로 혼용하고 있어 제작의 시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제(第)6호분(號墳)에는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는데 무녕왕릉(武寧王陵)에는 사신도(四神圖)가 없다. 이는 백제(百濟)가 무녕왕릉조성시기((武寧王陵造成時期)까지는 묘제(墓制)에 사신도(四神圖)를 그리지 않았던 것이며 그 이후에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보면 본격적인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지는 것은 진파리(眞坡里) 일호분(一號墳), 통구사신총(通溝四神塚), 내리(內里) 일호분(一號墳), 통구4호분(通溝四號墳), 통구5호분(通溝五號墳) 등 후기(後期)(550~650년쯤)로 분류하고 있고 중기(中期)(450~550년쯤)의 후기(後期)에 속하는 고분부터 사신도(四神圖)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그렇다면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앞선 묘(墓)라면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명문전(銘文塼) 「土壬辰年作(사임진년작)」에서 보면 전(塼)은 512년에 만든 것이 확실하고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에 무녕왕릉(武寧王陵)이 조성(造成)되었다고 보면 백제(百濟) 고분(古墳)에서 나타나는 본격적인 사신도(四神圖)는 고구려(高句麗) 벽화고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다.

4)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pp.152-172 第三版 一志社. 1986年 3月 1日.

그리고 또 제(第)6호분(號墳)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앞선다면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지는 묘제(墓制)가 들어 왔다가 무녕왕릉(武寧王陵)처럼 사신도(四神圖)가 없는 묘제(墓制)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여 능산리(陵山里) 석실고분(石室古墳) 사신도(四神圖)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형성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전축분(塼築墳)을 만드는 그리 멀지않은 시기(時期)에 모든 장엄과 유택의 보호를 다한 무녕왕릉(武寧王陵)을 만들면서 사신(四神)묘제가 들어와 있는데 이를 제외 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은 전문전(錢文塼)과 연화문전(蓮花文塼)을 혼용하고 있어 전문(塼文)을 통한 시대구분(時代區分)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조기술에 있어 4평일수(四平一豎)의 무녕왕릉(武寧王陵)과 10평일수(十平一豎), 8평일수(八平一豎), 6평일수(六平一豎), 4평일수(四平一豎)의 순(順)으로 체감시켜 쌓아올린 축조법이 중국육조(中國六朝)의 전축분(塼築墳)을 보더라도 제(第)6호분(號墳)의 축조기술이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뒤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第)6호분(號墳) 천정(天井)등 축조기술은 무녕왕릉(武寧王陵)의 회(灰)를 끼운 천정(天井)의 축조기술 보다 세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고분(古墳)의 위치(位置)로 보면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은 묘실(墓室) 중심(中心)에서 약 17m에 불과하고 봉분을 보면 무녕왕릉(武寧王陵) 봉분 반경(半徑)이 약 10m로 제(第)6호분(號墳) 봉분에 상접(相接)하여 있다. 그리고 배산(背山)으로 보면 무녕왕릉(武寧王陵)이 제(第)6호분(號墳)의 뒷면 높은 곳에 위치하여 풍수지리설로 보아 송산(宋山)을 주봉(主峰)으로 보면 무녕왕릉(武寧王陵)이 상위(上位)에 있고 제(第)6호분(號墳)이 하위(下位)에 있는 것이다.

만일 백제(百濟) 웅진시대(熊津時代)에 풍수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면 제(第)6호분(號墳)이 조성된 후 무녕왕릉(武寧王陵)을 제(第)6호분(號墳)의 주산(主山) 맥인 배면에 조영할 수 없다. 제(第)6호분(號墳)도 왕릉일 가능성이 높은 고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문전(銘文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는 「土壬辰年作(사임진년작)」의 명문전(銘文塼)이 출토되었고 제6호분(第號墳)에서는 「梁良瓦爲師矣(양양와위사의)」의 전(塼)이 출토되었다.

「土壬辰年作(사임진년작)」의 임진년(壬辰年)은 512년 무녕왕(武寧王) 12년에 해당된다. 백제의 전축분(塼築墳)이 중국(中國) 남조(南朝)의 묘제(墓制)에서 나왔다는 것은 국내 학자나, 일본학자들이 이미 누누히 연구한 바 이기 때문에 새로 말할 것이 없다. 다만 백제인(百濟人)이 중국(中國)의 남조전축분(南朝塼築墳)을 백제적(百濟的) 창안으로 일부 발전시켰다는 것은 윤무병(尹武炳) 박사(博士)의 연구논문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러면 무녕왕릉(武寧王陵) 전(塼)을 만든 512년에 대하여 문헌사쪽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백제가 웅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남조(南朝)와의 관계를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보면 동성왕(東城王) 6년(484)에 백제(百濟)에 사신을 보내고 무녕왕(武寧王) 12년(512)과 동왕(同王) 21년(521)에 양(梁)에 사신을 보냈고 이에 대한 양(梁)의 무제(武帝)는 521년 답례로 양(梁)의 사신을 백제에 보냈다. 이어, 성왕대(聖王代)(523-554)에는 3번에 걸쳐 양(梁)에 사신을 보냈다. 이 성왕(聖王) 16년 까지는 웅진(熊津)시대로 성왕(聖王) 2년에 양고조(梁高祖)가 조서(詔書)를 보내어 성왕을 지절도독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하고 있다. 백제성왕(百濟聖王)은 동왕(同王) 12년(534)에 양(梁)에 사신을 보냈으며 동왕(同王) 19년(541)에 양(梁)에 또 사신을 보내어 경의(經義)와 시경박사(詩經博士) 및 공장(工

匠) 화사(畫師)등을 칭하니 이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중국(中國) 양서(良書) 권(卷)54 열전(列傳) 제(第)48 제이(諸夷)의 백제조(百濟條)에도 양(梁)의 황제가 칙서를 내려 시경박사(詩經博士)와 공장(工匠) 화사(畫師)를 백제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녕왕릉(武寧王陵)의 명문전(銘文塼)의 임진년(壬辰年)을 바로 무녕왕(武寧王)이 양(梁)에 사신을 처음 보낸 해로 양(梁)의 문물이 백제(百濟)에 들어오는 기점이 된다. 그후 521년에 양(梁)에서 오는 사신 속에는 양의 기술자나 학자 예술가가 따라 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성왕대(聖王代)에는 양(梁)의 많은 학자와 기술자가 교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제(第)6호분(號墳)에서 출토된 「양양와위사의(梁良瓦爲師矣)」의 전명(塼銘)은 양(梁)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의 일본학자들과 박용전(朴容填) 교수(教授)는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로 판독하고 이를 풀어서 「양나라 관요품을 본떠서 만들다」로 해석했던 것인데 이번엔 경부자은(輕部慈恩)씨의 탁본사진을 보면 양(梁)자 다음의 글자는 양(良)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양양와위사의(梁良瓦爲師矣)」로 보면 「양(梁)나라의 좋은 기와를 표본으로 삼았다」거나 「양(梁)나라의 뛰어난 와장(瓦匠)을 공사(工師)로 삼았다」는 해석이 된다. 이는 중국(中國) 양(梁)의 제왕(帝王) 무덤의 관요품 전(塼)과 똑같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아도 양(梁)의 좋은 전(塼)을 표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나 양(梁)의 뛰어난 와장(瓦匠)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현실적으로 더 합당하게 생각된다. 필자는 「양양와위사의(梁良瓦爲師矣)」의 명문전(銘文塼)을 실물로 확인하고자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조회하였으나 그 명문전(銘文塼)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 명전(銘塼)을 찾아서 확실히 판독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은 전(塼)의 표본만 가지고 축조하기는 어려운 건축기술적(塼築技術的)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梁)의 기술지도(技術指導)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전부터 백제(百濟)에 이러한 건축기술(塼築技術)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외래(外來)의 묘제(墓制)를 갑자기 도입하면서 저와같이 정교한 기술을 바로 습득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무녕왕릉(武寧王陵)과 제(第)6호분(號墳)의 축조기술은 동일인(同一人)의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의해 멀지않은 얼마간의 시대적(時代的) 차이가 있다고 본다.

3. 맺는말

무녕왕릉(武寧王陵)은 512년 전(塼)을 만들어 아마도 무녕왕(武寧王) 당대에 유택을 미리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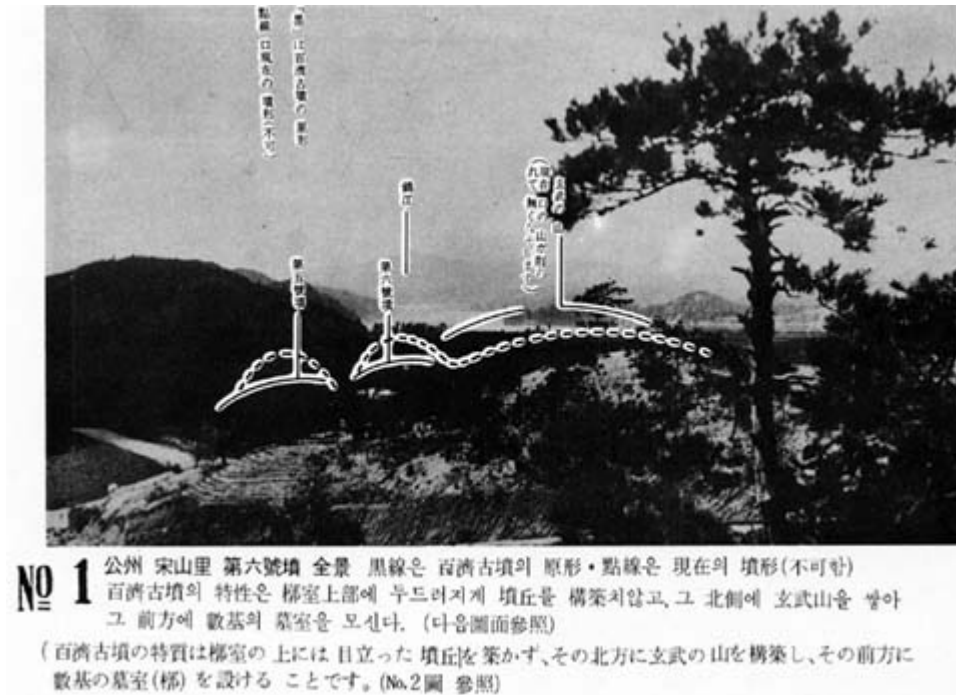
송산리(宋山里) 제(第)6호분(號墳)은 백제(百濟)의 묘제(墓制)중에 사신도(四神圖)가 도입되는 최초의 묘제로 무녕왕릉(武寧王陵)보다 후에 조성된 것이며 양(梁)과의 문물(文物)교류가 활발해진 시기인 성왕대(聖王代) 초기쯤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묘의 위치로 보아도 송산(宋山)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무녕왕릉(武寧王陵) 다음에 조성된 것이며 전(塼)의 명문(銘文)으로 보아도 양(梁)의 기술적(技術的)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제(第)6호분(號墳)의 관태(棺台)가 하나 밖에 없어 한 사람이 묻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태(棺台)가 동(東)쪽으로 있어 무녕왕릉(武寧王陵)인 경우는 동쪽에 남향으로 왕(王)의 시신이 있었던바 제(第)6호분(號墳)관태(棺台)도 남자(男子)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54년 성왕(聖王)이 관산성(管山城)에서 신라군의 급습을 받아 전사하였는데 그때 성왕(聖王)은 목

이 찢어져 머리 없는 시신만 장사지내게 되었던 것인바(일본서기(日本書紀) 십구(十九) 흠명기십오년조(欽銘紀十五年條)) 성왕(聖王)의 능(陵)인지도 모르겠다. 이 시기가 되면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지는 시기가 된다.

필자는 제6호분(第號墳)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여러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을 읽고 의문점 몇가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함을 밝혀둔다.

※()안은 본래의 사진설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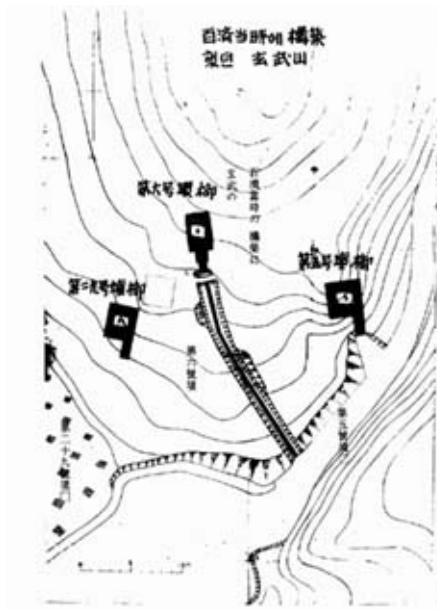


NO.1공주 송산리 제육호분 전경(公州 宋山里 第六號墳 全景)

黒線은 百濟古墳의 原形・點線은 現在의 墳形(不可함)

百濟古墳의 特性은 槨室上部에 두드러지게 墳丘를 構築치않고 그 北側에 玄武山을 쌓아
 그 前方에 數基의 墓室을 모신다(다음 도면참조)

(百濟古墳의 特質は 槨室の上には 目立った 墳丘を 築かず, その北方に 玄武の山を 構築し,
 その前方に 數基の 墓室(槨) を設ける ことです(N0.2圖 參照))



NO. 3 宋山里 第六號墳發見의 動機가 되었던 排水溝 尖端의 磚構築出土
 1933年 6月 28日 第一號墳부터 第五號墳까지 參道開鑿工事中에 이 사진의 左側一部分을 發見. 그길로 파헤쳐 7月 21日부터 發掘調査함.
 (宋山里 第六號墳發見의 動機를 作った 排水溝 尖端部의 磚構築 出土. 1933年 6月 28日 第一號墳から 第五號墳 までの 參道開鑿工事中に この圖 左側 尖端의 一部分을 發見. そのまま土を 覆い …… 7月 21日より 發掘調査 開始.)

NO. 2 宋山里 第六號墳 附近의 平面實測圖
 (宋山里 第六號墳附近의 平面實測圖)

NO.2 송산리 제육호분 부근의 평면실측도(宋山里 第六號墳 附近의 平面實測圖)
 (宋山里 第六號墳 附近의 平面實測圖)

NO.3 송산리 제육호분발견의 동기가 되었던 배수구 침단의 진구축출토
 (宋山里 第六號墳發見의 動機가 되었던 排水溝 尖端의 磚構築出土)

1933年 6月 28日 第一號墳부터 第五號墳까지 參道開鑿工事中에 이 사진의 左側一部分을 發見. 그길로 파헤쳐 7月 21日부터 發掘調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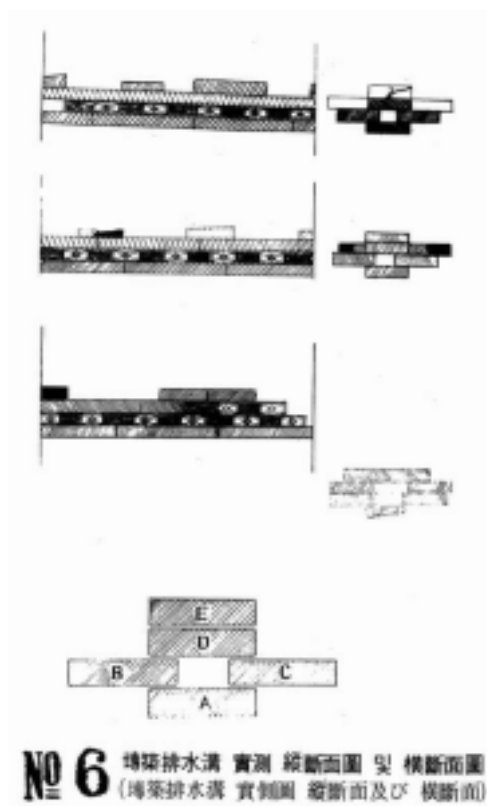
(宋山里 第六號墳發見의 動機를 作った 排水溝 尖端部의 磚構築 出土.)

1933年 6月 28日 第一號墳 から 第五號墳 まで 參道開鑿工事中に この圖 左側 尖端의 一部分을 發見. そのまま土を 覆い …… 7月 21日より 發掘調査 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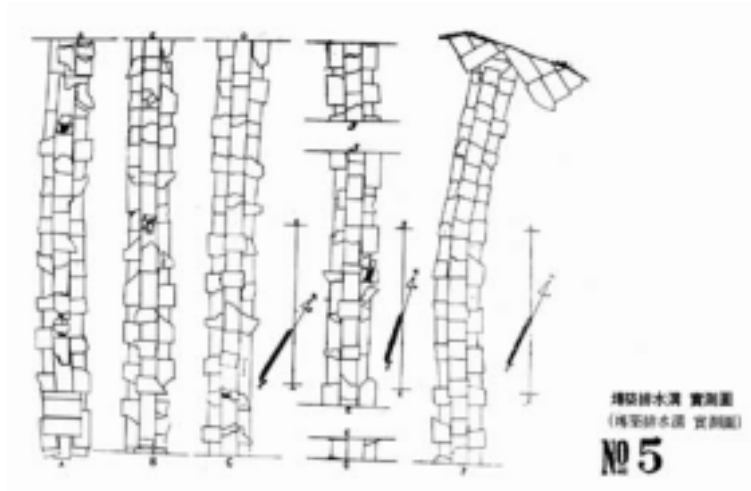
NO. 4 塙築排水溝를 덮은 흙을 파냄. 約 21m.
(塙築排水溝를覆った土を排土. 約21米.)

NO.4 전축배수구(塙築排水溝)를 덮은 흙을 파냄. 約21m.
(塙築排水溝를覆った土を排土. 約21米.)



NO. 6 塙築排水溝 實測 縱断面圖 및 橫断面圖
(塙築排水溝 實測圖 縱断面及及び 橫断面)

NO.5 전축배수구 실측도(塙築排水溝 實測圖)
(塙築排水溝 實測圖)



NO.6 전축배수구 실측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塼築排水溝 實測 縱斷面圖 및 橫斷面圖)
 (塼築排水溝 實測 縱斷面圖 び 橫斷面圖)



NO 7 宋山里六號墳 羨道 塼塞를 위한 壁面
 外側은 옷칠로 거칠게 바르다. 그 下측 基部로부터 塼築排水溝가 연결된다. 여기까지 발굴 날짜는 1933年 8月 1日.
 (宋山里 第六號墳 羨道塼塞의爲의 壁面, 外側漆喰にて荒く塗りつぶす. その下方基部より塼築排水溝가續く. 發掘がこの場所に達したのは 1933年 8月 1日.)

NO.7 송산리육호분 선도 전세를 위한 벽면(宋山里六號墳 羨道 塼塞를 위한 壁面)

外側은 옷칠로 거칠게 바르다. 그 下측 基部로부터 塼築排水溝가 연결된다. 여기까지 발굴한 날짜는 1933年 8月 1日.

(宋山里 第六號墳 羨道塼塞의爲의 壁面.

外側漆喰にて荒くりつぶす. この下方より塼築排水溝가續く. 發見がこの場所に達したのは 1933年 8月 1日.)



NO. 8 羨道前 壁을 위에서 내려다 봄.
 右側塼築排水溝, 左側羨道部 天井部の 파괴된 모습. 羨道の 一部. 天井은 百濟滅亡後 곧 파괴된 것으로 추정됨. 그래서 玄室内의 主要한 유물들이 거의 없어져 있었다.
 (羨道前壁を 上部より見る. 右側塼築排水溝, 左側羨道部天井部破壊の狀況. 羨道部の一部天井は百濟滅亡後 間もなく破壊されたと推定される. その爲玄室内の主要な遺物は 殆ど失われていた.)

NO.8 선도전 벽(羨道前 壁)을 위에서 내려다 봄

右側塼築排水溝, 左側羨道部 天井部の 파괴된 모습. 羨道の 一部. 天井은 百濟滅亡後 곧 파괴된 것으로 추정됨. 그래서 玄室内의 주요한 유물들이 거의 없어져 있었다.

(羨道前壁を 上部より見る.)

右側塼築排水溝, 左側羨道部天井部破壊の狀況. 羨道部の一部天井は百濟滅亡後 間もなく破壊されたと推定される. その爲玄室内の主要な遺物は 殆ど失われていた.)



NO.9 선도전벽의 내측 전적(羨道前壁의 内側 轉積)모습.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古代에 盜掘로 因해 파괴된 天井部分.

(羨道前壁의 内側 塼積狀況.

日光のさし込む所は古代に於ける盜掘より破壊された天井部)



NO 11 古代에 盜掘했던 구멍으로 玄室內을 촬영.
이때엔 炭酸가스가 가득해서 촛불도 꺼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古代의盜掘された穴から玄室內を撮影。この時はまだ炭酸ガスが充滿し、蠟燭の火も消え、誰も入れなかった。)

NO.11 고대(古代)에 도굴(盜掘)했던 구멍으로 현실내(玄室內)를 촬영.

이때엔 炭酸가스가 가득해서 촛불도 꺼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古代의盜掘された穴から玄室內を撮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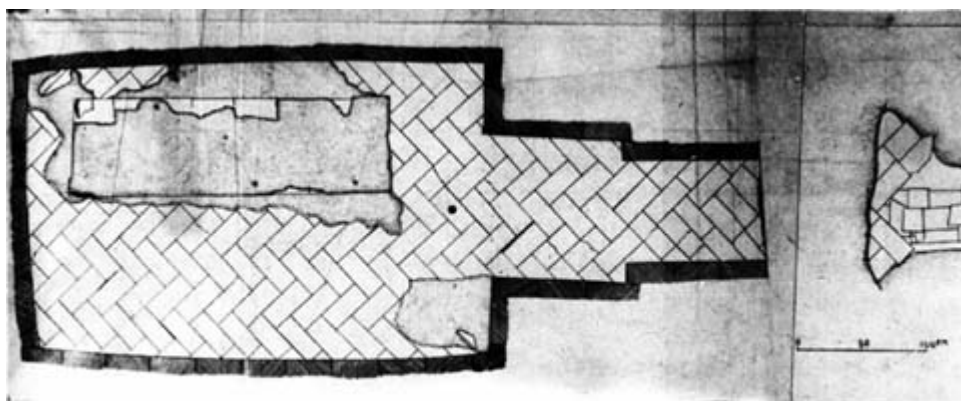
この時はまだ 炭酸ガスが 充滿し、蠟燭の火も消え、誰も入れなかった。)



NO.12 羨道를 玄室에서 봄.
 天井파괴된 곳을 촬영하기 위해 자리로 덮었다.
 (羨道を玄室から見る。天井破壊部を撮影の便宜上 蓆で覆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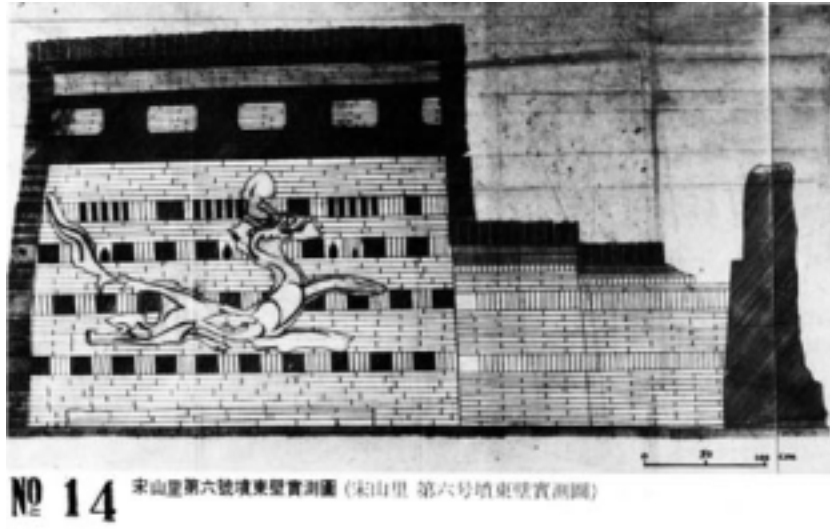
NO.12 선도(羨道)를 현실(玄室)에서 봄

天井 파괴된 곳을 촬영하기 위해 자리로 덮었다.
 (羨道を玄室から見る。
 天井破壊部を撮影の便宜上 蓆で覆う)



NO. 13 宋山里 第六號墳 玄室. 羨道部 床面平面圖
 (宋山里 第六號墳 玄室. 羨道部 床面平面圖)

NO.13 송산리 제육호분 현실. 선도부 상면평면도(宋山里 第六號墳 玄室. 羨道部 床面平面圖)
 (宋山里 第六號墳 玄室. 羨道部 床面平面圖)



NO.14 송산리 제육호분동벽실측도(宋山里第六號墳東壁實測圖)
 (宋山里 第六號墳 東壁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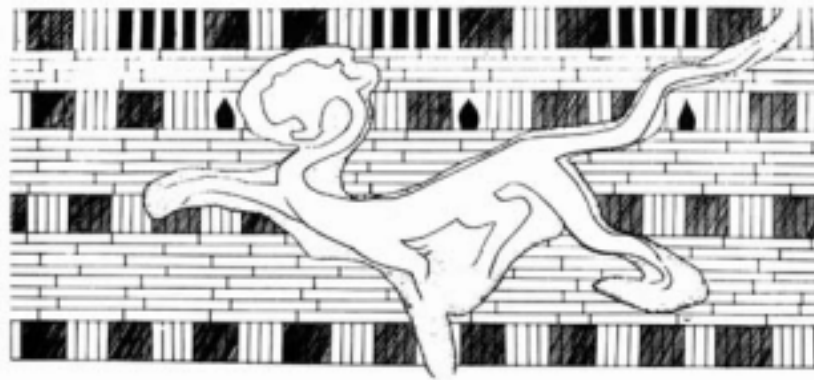
NO.15 동벽 청룡벽화(東壁 青龍壁畫)
 (東壁青龍壁畫)



NO.16 동벽 청룡벽화 실측도(東壁 靑龍壁畫 實測圖)
 (東壁靑龍壁畫實測圖)



NO.17 서벽 백호벽화(西壁 白虎壁畫)
 (西壁白虎壁畫)



№ 18 西壁 白虎壁畫 實測圖
(西壁 白虎壁畫 實測圖)

NO.18 서벽 백호벽화 실측도(西壁 白虎壁畫 實測圖)

(西壁 白虎壁畫 實測圖)



№ 19 北壁(奧壁) 實測圖(北壁(奧壁)實測圖)



南壁(前壁) 實測圖(南壁(前壁)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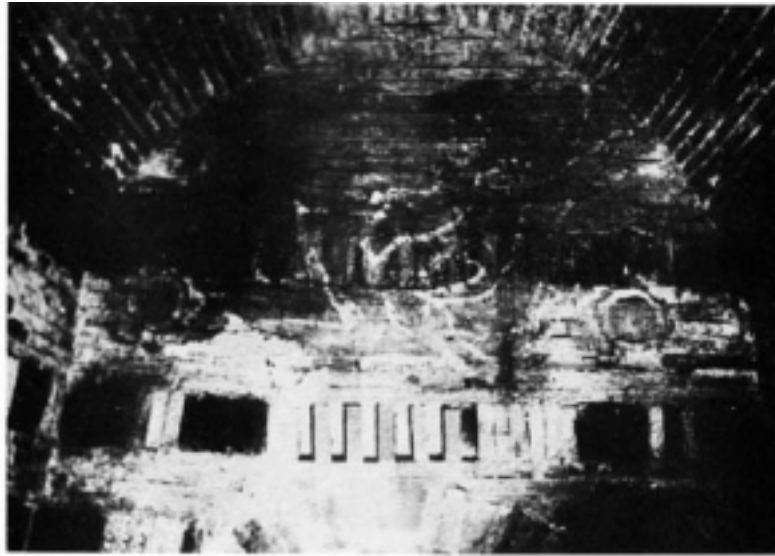
實測圖

NO.19

북벽(오벽) 실측도(북벽(오벽) 실측도)(北壁(奧壁) 實測圖(北壁(奧壁) 實測圖))

남벽(전벽) 실측도(남벽(전벽) 실측도)(南壁(前壁) 實測圖(南壁(前壁) 實測圖))

실측도(實測圖)



20 南壁朱雀과 明壁畫(南壁朱雀と 明壁畫)

NO.20 남벽주작과 명벽화(南壁朱雀과 明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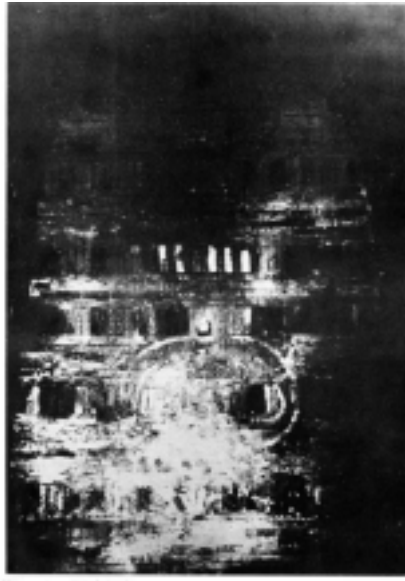
(南壁朱雀と 明壁畫)



21 南壁朱雀과 日·月壁畫實測圖와 그 想定圖
(南壁朱雀と 日·月の壁畫 實測圖とその 想定圖)

NO.21 남벽주작(南壁朱雀)과 일·월벽화실측도(日·月壁畫實測圖)와 그 상상도(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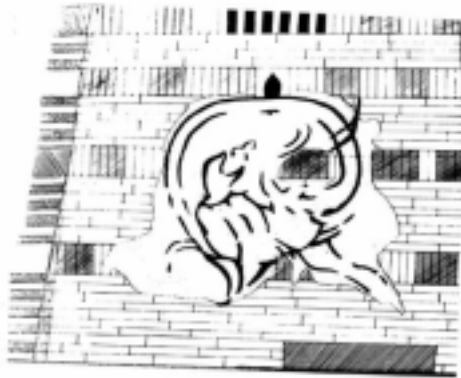
(南壁朱雀と 日·月の壁畫 實測圖とその 想像圖)



№22 북벽 현무벽화 (北壁 玄武壁畫)

NO.22 북벽 현무벽화(北壁 玄武壁畫)

(北壁 玄武壁畫)



№23 北壁玄武壁畫實測圖 想像圖
(北壁玄武壁畫實測圖と想像圖)

NO.23 북벽현무벽화실측도(北壁玄武壁畫實測圖)와 상상도(想像圖)

(北壁玄武壁畫實測圖と想像圖)



NO.24 新山山頂山頂 佛龕の北側部
(新山山頂山頂の北側のもの)

NO.24 추정불감세부(동벽의 북측것)(推定佛龕細部(東壁의 北側것))
(推定佛龕細部(東壁の北側のもの))



NO.25 新山山頂山頂 佛龕の北側部 佛龕에서 발견된 造瓦銘入磚(拓本)
(NO.25 佛龕에서 발견된 造瓦銘入磚(拓本)의 拓本)
(NO.25 佛龕에서 발견된 造瓦銘入磚(拓本)의 拓本)
(NO.25 佛龕에서 발견된 造瓦銘入磚(拓本)의 拓本)

NO.25 송산리제육호분(宋山里第六號墳) 선도전면진새(羨道前面填塞)에 사용(使用)했던
전중(塼中)에서 발견(發見)된 조와명입전(탁본)(造瓦銘入塼(拓本))

1945年 8月까지 부여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소재불명.
 (宋山里第六號墳 羨道前面墳塞に 使用した 磚の中から 發見された 造瓦銘入磚(拓本)
 昭和 20年(1945年 8月)まで 夫餘博物館に 陳列されていたが 現在 所在不明.)



NO.26 공산지에 있는 공주고도모사공.(山誌에 있는 公州古圖模寫)
 (公山誌所載의 公州古圖의 模寫)